

## OECD 세계화 작업반 회의 참석

- 하병기 부원장

I. 출장자: 하병기 선임연구위원

II. 출장기간: 2012.4.25(수)~4.29(일)

III. 출장 지역: 프랑스 파리 OECD

IV. 참석회의명: OECD산업혁신기업위원회 산업세계화작업반,  
2011.4.26(목) ~5.27(금)

V. 작업반 토의 내용

□ 산업혁신기업위원회 GVC(Global Value Chain) 연구 동향

○ GVC와 관련하여 산업혁신기업위원회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중  
임.

- 무역국과 합동으로 OECD 내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WTO 등과도 공동 연구인 부가가치 무역을 수행 중임.
- 현재 작업반은 그간의 작업내용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한 "Synthesis Report on Global Value Chains" 발간을 준비중임.
- 내년 3월 위원회와 작업반의 공동 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음.
- 보고서는 요약, GVC의 의의, GVC와 글로벌 무역, GVC내에서의 신흥국가, 경쟁력과 GVC, GVC내에서 신성장원천으로서의 intangible assets, GVC와 글로벌 위험성의 7개 장으로 구성
- 2013과 2014년 예산에도 산업혁신기업위원회가 GVC 연구를 계속 수행하도록 책정되어 있음.

#### □ GVC 현황(Mapping GVC)

- GVC 참여도, 참여기간 등의 지수를 활용하여 GVC의 실체를 파악
  - 산업별 및 최종 용도별 양국 무역 DB, IO data, 기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
- 분석의 중간 결과로 세계 경제에서 GVC 중요성이 크지고 있음.
  -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GVC의 상대적 규모가 큼.
  - 신흥국의 참여도가 커지고 있음.

- NAFTA와 EU 국가에서도 GVC가 중요함.

○ 향후 서비스무역을 포함하고 방법론을 개선하여 나갈 예정임.

□ 기술무역수지 데이터베이스 평가

○ 세계화로 증가하는 지식 및 기술의 국가간 흐름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OECD 기술무역수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

○ 기술무역은 특허 및 라이선스를 통한 기술이전으로 주로 기업내 거래가 많음.

- 별도의 지불이 없는 경우에는 과소 평가, 그리고 이전가격에 따른 불완전 평가 등의 문제가 있음.

○ 국가간 통계 집계 방법 및 데이터 원이 달라 국제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.

- 다만, 현재 진행중인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6판이 실행되면 국가간 비교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

□ Orbis-AMNE 데이터 베이스의 비교

○ 정책 분석을 위해 기업수준의 micro data가 필요함에 따라 상업

DB인 Orbis와 OECD DB인 AMNE의 연결을 시도

- OECD는 micro data가 없어 다국적 기업의 기업 데이터가 있는 Orbis 활용을 검토
  - Orbis는 Bureau Van Dijk Electronic Publishing사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DB임.
- 다만, Orbis와 OECD DB인 AMNE 연결 작업에서는 신흥국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

□ 다국적 기업의 재무 상황 분석 및 지표 도출

- 2008년 OECD 이사회가 투자위원회 투자통계작업그룹에 FDI 통계와 다국적 기업 활동 통계의 조화와 통합을 지시함에 따른 작업임.
  - 이에 투자통계작업그룹은 기업 자산, 영업 이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수의 생산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.
-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2012년 10월 투자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음.
  - 2013년 데이터 수집 가이드라인 작업을 수행하며, WPGI에서 작업한 세계화지수 핸드북을 수정할 계획임.

□ Eurostat-Business Functions and micro-data linking

- 다국적 기업의 outsourcing에 대한 설문조사를 micro-data와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미.
- 동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insourcing 및 outsourcing의 기능별 구조와 변화를 파악하여 2013년 그 결과 통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 - 기업의 산업별로 비즈니스 서비스, R&D 등 outsourcing 분야 구조를 파악

□ WPGI 신규 프로젝트

- 2016년까지 WPGI의 작업 mandate 연장
- 기업의 영업활동 구조(business structure: 제조업, 지원서비스, R&D 등)와 세계화기업(globalised enterprises)의 성취라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행
  - 기업의 세계화 정도에 따라 고용 및 생산성 등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화기업의 분류부터 시작
  - 다만, 기업 데이터(micro-data)와 연결하여 작업하여야 하는데, 기업수준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연결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음(기업의 무역데이터와 연결 등).

○ 2012년 초반에 마이크로데이터 존재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시행하고 2013년 초반까지 통계치(descriptive statistics)를 생산하고 2014년 하반기에 실증분석 결과 가능할 것임.

○ 회원국의 참여 부탁하고 참여 관련하여 2주 이내에 설문서를 송부할 예정임.

□ WTO-OECD 공동 작업

○ 글로벌 IO table을 만들어서 부가가치 무역을 측정하고자 하는데, 데이터의 질을 제고하고 시계열을 확대할 예정임.

- 장기적으로는 intangible capital과 property income을 포함할 예정임.

○ 2012년 6월에 작업반에 보고하고 2012년 말에 DB release

□ 내년 회의 및 사무국 요청 사항

○ 내년 3월 산업혁신기업 위원회와 공동 workshop을 고려

○ 세계화 기업의 분석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참여를 요망

- 수출입, 해외투자 등 다수의 기업 데이터 베이스의 통합이 요구되어 쉽지 않은 작업임.

## VI. 평가

- 현재 동 작업반에서는 GVC(글로벌 부가가치 사슬)에 대한 분석을 의욕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, 기업수준의 micro-data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.
  - 이와 관련하여서는 WTO도 공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점차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파악
- OECD, Eurosta 등 국제기구가 지분구조 등 기업 미시데이터를 사용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회원국의 참여를 적극 요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
  - 이와 같은 미시적 연구는 그동안 비밀을 이유로 다루지 않았던 기업 고유의 통계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법 및 통계의 정비가 필요함.
- OECD 투자 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새로운 통계는 해외투자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기 산출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함.
  - 다만, 지수의 산출시 정의 및 기술적인 사항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OECD 논의 사항을 잘 파악하여 향후 국제기구에 통계 제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필요
- 동 작업반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던 미국 및 일본의 참여가 올해도 부진한 양상

- 대외비로 취급되는 기업 통계를 다루고 있어 이들 국가가 다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측
- 신규 추진되는 세계화 기업 분석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대응